



아름다운 사람 신나
〈첼썩 꽃비가 내리면〉의
가수



'바람의 향기 불어와 철쭉꽃비가 내리면, 산본가는 전철을 타고 수리산역 모퉁이 돌아서 나 그곳에 가리라' 노래가사가 얼마나 서정적인지, 음률이 없었다면 어느 시인의 시한 귀절을 옮겨놓은 것이라 생각할 정도이다. 그 <철쭉꽃비가 내리면>으로 요즘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수 신나씨를 군포예총 사무실에서 만났다. 처음 그녀의 이름만 듣고는 트로트가수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기타를 치며 맑고 밝은 포크를 부르는 실력파 가수였다.

신나씨, 이름이 부르는 노래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본명은 아닐 것 같은데 '신나' 라는 예명을 짓게 된 얘기 좀 해주세요.

본명은 신지균이에요. 남자 이름 같죠? 제 1집에 '신나게' 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을 따서 신나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노래가 나올 무렵 우연희의 '우연히' 신나의 '신나게' 라고 짓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재회' 라든가 '철쭉꽃비가 내리면' 등이 알려지면서 예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니 가수 신나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요.

요즘 '나는 가수다'니 '불후의 명곡'이니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며 80~90년대의 노래가 다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재조명 되고 있는데 신나씨도 내공이 쌓인 실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우리 때는 지금처럼 일찍 오디션을 봐서 가수로 키운다든지, 실용음악과 등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래를 좋아해서 반 친구들 앞에 나가 노래를 불렀고 저애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는 친구들의 인정이 있으면 '아,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란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특별히 노래를 잘 한다기보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목소리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가수활동은 98년 전국노래자랑 '과천' 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였어요.



하하, 결국 타고 났다는 말씀이군요. 신나씨 음색이 참 맑고 투명해요. 그런가하면 고음 부분으로 갈 때는 허스키한 소리가 섞이면서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변하더군요. 그래서 맑은 건전가요 같은 노래도 잘 소화하고 고독하고 슬픈, 한이 서린 노래를 불러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나씨가 시조창을 하는 것이 그런 소리를 내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시조창은 길게 호흡을 조절해서 불러야 해요. 청중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의 음색이나 호흡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는데 올해 6월 '전주대사습놀이' 에서 시조부 참가방상을 받았답니다. 어떤 분이 장르를 바꾸는 것 아니냐고 하던데 그건 아니고, 제가 노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계속하려고요.

시조창으로 상도 받고 국선도로 사범자격증까지 딴 전문가 수준이고 도대체 못 하는 게 없는 만능엔터테이너시군요.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어요. 2집 음반 <철쭉꽃비가 내리면>으로 요즘 여러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강신웅 군포예총 지부장님과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타를 배우러 학원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작곡가 강신웅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 노래 '재



회' 를 비롯해서 1집과 2집에 실린 대부분의 곡을 작곡해 주셨죠. 한 때 '이치현과 벗님들'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기타도 가르쳐 주고 곡도 주시고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힘들 때 오빠처럼 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분이랍니다. 지금은 제가 소속한 일인기획실 대표이신거죠. 19살 때 만난 인연이 어언 24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네요. 아, 이러면 제 나이가 저절로 밝혀지는 거군요. (웃음)

어쩐지 만만치 않은 노래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십 년이 훨씬 넘는 가수 활동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군요. 신나씨는 주로 언더그라운드나 라이브 공연, 축제 행사 등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지방공연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참 힘들었어요. 공연이 아무리 늦게 끝나도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꼭 도착하곤 했지요. 지금은 다 커서 대학교 2학년, 1학년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늦게 돌아오는 밤이 무서웠대요. 특히 비오는 날은 더 그랬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핸들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걸모습만 보고 누가 대학생 엄마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젊고 멋진 모습을 가꾸는 비결은 무엇인지요. 노하우를 가르쳐 주세요.

노하우까지는 아니구요. 제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는 국선도 덕분이 아닌가 해요. 국선도는 그 옛날 '화랑도' 라고 하는 심신훈련 운동인데 아침 7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저절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늘 깨어있는 의식이 될 수 있어 좋습니다. 국선도에 '두자법' 이라고 하는 물구나무서기가 있어요. 거꾸로 꼳꼳하게 서면 온 몸의 피가 순환되면서 맑은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 보고 싶군요. 다시 신나씨의 음반 얘기로 돌아가서 올해 나온 2집 <철쭉 꽃비가 내리면>이 노랫말이 참 예쁘잖아요. 요즘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는 거의 없어요. 이 음반을

발표하고 나서 반응들이 어땠던가요?

저도 놀랐습니다. 특히 군포시에서 열린 '철쭉축제' 기간에 제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물론 가사에 산본과 수리산이란 지명이 들어가는 덕분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곱고 아름다운 가사라 더욱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지역축제에 가서도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있습니다. 강신웅 선생님이 작곡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작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배 더 많다고 하셨어요. 딱 고심하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셨지요. 저도 가사가 예쁘고 밝은 노래가 좋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오래 남게 되고 나중에는 불후의 명곡까지 되는 게 아닐까요. 요즘은 라디오 방송이나 케이블 등에서도 저를 많이 불러준답니다.

<철쭉 꽃비가 내리면>이 군포의 노래로 선정되고 철쭉동산에 노래비가 세워진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노래비만 있고 정작 그 노래를 들어보는 시스템이 없더군요. 목포 유달산에 가면 <목포의 눈물> 노래비와 함께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울고 넘는 박달재>나 <칠갑산> 등의 노래비 옆에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철쭉동산에는 그게 없어 좀 아쉬웠어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로서 저는 참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지요. 시에서 노래비를 만들어 주신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노랫소리까지 흘러나온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말예요. 노래비 옆에 가사에 나오는 빨간 우체통을 세워 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예쁜 우체통이더군요. 저절로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신나씨는 노래만 잘 하는 게 아니더군요. 봉사단체 '좋은





사람들’ 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한민국 연예예술인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셨어요. 이렇게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는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위로해 주면서 보듬어주는 그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거리공연’ 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화되어 저도 미약하나마 제가 가진 재능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제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사회봉사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신나씨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 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동적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가수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저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음악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았더라면 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내년이면 저희 집에는 대학생이 세 명이예요. 더 열심히 활동해서 벌어야 합니다.(웃음)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음악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수 ‘신나’ 로 알려지길 원합니다. 유행에만 급급해 세태를 쫓는 노래가 아닌 제 자신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끈게 서고 싶어요.

처음에는 맑은 음색에 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그녀의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에 반하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따뜻하고 여린 마음에 반하게 되는 가수 신나씨.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성실한 그녀를 보면서 예인열전이란 테마보다는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람’ 이란 주제로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대담 및 글 오은희

